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역대상 —

기민석*

1. 역대상 4:10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יִּקְרָא יַעֲקֹב לְאֱלֹהֵי יִשְׂרָאֵל לֵאמֹר אֲסִבְּרָךְ תְּבָרְכֵנִי וְהַרְבֵּית
אֶת־גְּבוּלֵי וְהוֹתֵתָ יָדְךָ עִמִּי וְעָשִׂיתָ מִרְעָה לְבָלָתִי עֲצָבִי וַיָּבֹא
אֱלֹהִים אֶת־אֲשֶׁר־שָׁאֵל:

『개역개정』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
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
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
락하셨더라

『새번역』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공동개정』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손수 액

* The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minsuckee@kbtus.ac.kr.

『새한글』	<p>운을 막아 <u>어려운 일</u>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u>이루어주셨다</u>.</p>
	<p>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u>외쳤다</u>. “<u>정말로</u>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u>손이 저와 함께하여</u> 재앙이 저를 <u>고통스럽게</u>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것을 <u>이루어 주셨다</u>.</p>
ESV	<p>Jabez <u>called upon</u> the God of Israel, saying, “<u>Oh that</u>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border, and that your <u>hand might be with me</u>,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so that it might not bring me <u>pain</u>!” And God <u>granted</u> what he asked.</p>
NET ²	<p>Jabez <u>called out</u> to the God of Israel, “<u>If only</u> you would greatly bless me and expand my territory. May your <u>hand be with me</u>! Keep me from harm so I might not endure <u>pain</u>.” God <u>answered</u> his prayer.</p>
LB	<p>Und Jabez <u>rief</u> den Gott Israels <u>an und sprach</u>: <u>Ach</u> dass du mich segnest und mein Gebiet mehrtest und deine <u>Hand mit mir wäre</u> und schafftest, dass mich kein Übel <u>bekümmere</u>! Und Gott <u>ließ kommen</u>, worum er bat.</p>
BB	<p>Jabez <u>rief</u> zum Gott Israels <u>und sagte</u>: »Segnemich und erweitere mein Gebiet! <u>Steh mir bei mit deiner starken Hand</u>. Bewahre mich vor Unheil, damit ich keine <u>Schmerzen</u> habe!« Gott <u>ließ das eintreffen</u>, worum er gebeten hatte.</p>

1.1.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וַיִּקְרָא(와이크라)

‘아뢰다(sprachen)’, ‘빌다, 간구하다(anrufen)’, ‘부르다(call upon)’와 다르게 ‘외쳤다(call out)’로 번역했습니다.

(2) וַיִּשָּׂא(임)

간청을 나타내는 וַיִּשָּׂא(임)을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처럼 생략하지 않고 더 선명하게 부각하여 ‘정말로’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역본들 가운데 ‘부디’, ‘oh that’, ‘if only’, ‘ach’와 상응합니다.

(3) וַיִּשָּׂא יָמָּה(야드카 임미)

전치사 וַיִּשָּׂא(임)의 용례와 ‘함께(with, mit)’라는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를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4) עֲצָבָי(오츠비)

‘근심’이나 ‘어려운 일’과는 다르게 ‘고통(pain, Schmerz)’으로 번역했습니다.

(5) וַאֲבֵי(와야베)

하나님이 ‘허락(grant)’하거나 ‘답하신(answer)’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1.2.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야베스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기도가 시작하는 9절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겪은 끝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형제들보다 더 존중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었던 야베스는, 인생살이는 고통이 아니길 바라며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간구는 그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인 קָרָא(카라)였습니다(은 3:4 참조).

(2) 우리말 성경이 종종 감탄사 הִנֵּה(힌네)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어떤 단어나 문법적 기능도 놓치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옮깁니다. 그래서 אִם(임, ‘정말로’)를 빠뜨리지 않고 번역하여, 복을 바라는 야베스의 절박한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3)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의 עָמִי יָדָךְ(야드카 임미) 바로 뒤에는, ‘주님이 행하신다’는 뜻의 וַאֲשֵׁיתָ(워아시타)가 이어집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이 두 표현을 하나로 묶어 의역하면서 עִם(임)을 목적격 조사 ‘~를’로 번역합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나를 도우사’,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손수 … 막아’와 같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עִם(임)을 있는 그대로 살려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는 ‘함께’라는 표현이 지닌 문학적인 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4) 야베스의 출생과 기도를 담은 9-10절에서 ‘고통’이라는 말과 뜻은 선명하게 주목받아야 합니다. 이름 ‘야베스’, עֲבֵץ(야으베츠)는 그의 어머니가 겪은 힘든 출산 과정에서 비롯된 עֲצָב(오체브, ‘고통’)와 언어유희로 엮여 있습니다. 그 고통은 목숨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고통은 ‘근심’이나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새번역』과 『새한글』이 번역한 것처럼 매우 생생한 ‘고통’입니다.

(5)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문자적으로 ‘그가 가져왔다(lassen eintreffen, lassen kommen)’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의 ‘허락하다’나 NET²의 ‘answer’, ESV의 ‘grant’는 다소 의역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는 『새한글』의 번역이 더 적절하고 정확한 의미를 옮깁니다.

1.3. 『새한글』 역대상 4:10의 가르침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바 없는, 그저 주어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벌어진 문제는 이겨내야 할 명분과 의지를 북돋아 주지만, 날 때부터 조건 지어진 고통은 인생에 무겁고 치명적인 약점만 짐을 지웁니다. 부모와 가정, 인종, 국적, 타고난 건강과 외모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조건을 자신이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출산의 위기와 고통은 야베스의 신상에 취약한 문제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뜻하는 עֲצִיב(오체브)의 자음 순서를 바꾸어 יַעֲבִיץ(야오베츠)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야베스에게는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인생의 절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열악한 운명을 부여한 하늘을 향해 강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자신의 치명적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남자는 건강한 자손을 많이 가져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의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그렇게 건강하고 강인하게 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타고난 약점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주어진 한계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조건과 약점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외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2. 역대상 6:49[34]¹⁾, 쉽게 아는 제사 용어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אַהֲרֹן וּבָנָיו מִקְטָרִים עַל־מִזְבֵּחַ הָעֹלָה וְעַל־מִזְבֵּחַ הַקָּטָר

1) BHS⁵와 『공동개정』, LB는 34절.

לְכָל מִלְאָכָה קֹדֶשׁ הַקִּדְשִׁים וּלְכַפֵּר עַל־יִשְׂרָאֵל כְּכֹל אֲשֶׁר צִוָּה
מֹשֶׁה עֶבֶד הָאֱלֹהִים:

- 『개역개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 『새번역』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드리
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
다.
- 『공동개정』 그러나 번제단과 분향단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는 아
주 거룩한 일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도맡았다. 하느님
의 종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는
일은 그들이 맡아 하였던 것이다.
- 『새한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태우는제단(번제단)과 향피
우는제단(향단)에서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치면서 거
룩거룩한곳(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
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다.
- ESV But Aaron and his sons made offerings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on the altar of incense for all the work of the Most Holy Place, and to make atonement for Israel, according to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God had commanded.
- LB Aaron dagegen und seine Söhne waren verordnet zum Dienst am Brandopferaltar und am Räucheraltar und zu allem Dienst im Allerheiligsten und Sühne zu schaffen für Israel, wie Mose, der Knecht Gottes, geboten hatte.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מִזְבֵּחַ הָעֹלָה(미즈바흐 하올라)와 מִזְבֵּחַ הַקְטֹרֶת(미즈바흐 학크토레트)
어려운 한자어 ‘번제단’과 ‘향단/분향단’ 대신, 알기 쉬운 ‘다태우는제단’
과 ‘향피우는제단’으로 번역했습니다.
- (2) מִקְטִירִים(마크티림)
고증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제사드리다(make offering)’ 대신, ‘제물을
태워 연기를 바치다’로 번역했습니다.
- (3) קֹדֶשׁ הַקִּדְשִׁים(코데쉬 학코다셈)

어려운 한자어 ‘지성소’ 대신, 쉬운 ‘거룩거룩한곳’으로 번역했습니다.

(4) וִלְכָּפֹר(우르카페르)

어려운 한자로 된 ‘속죄하다(atone)’ 대신, ‘죄를 없애다’로 번역했습니다.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한자로 구성된 단어는 전하고자 하는 뜻을 몇 문자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사용하기에 편리한 한자어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경과 신학 용어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쉽지만,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에만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한자 용어가 매우 낯섭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세대가 즐겨 사용하던 한자어는 점차 우리말 용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미래 세대가 성경을 접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새한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단을 ‘다태우는제단’ 그리고 향단/분향단을 ‘향피우는제단’이라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했습니다(창 8:20; 출 29:18; 30:1; 눅 1:11 등).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가 지닌 고유한 뜻도 잘 전달합니다. הָעֹלָה(하올라) 행위는 제물 전체를 온전히 태우는 특징이 있습니다(레 1:9, 13; 6:9-10 참조). 그래서 ‘다태우는제단’은 מִזְבֵּחַ הָעֹלָה(미즈바흐 하올라)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이며, 단어에 담긴 특정 제사 행위도 잘 전달합니다.

(2) 동사 קָטַר(카타르)의 일반적 동작을 나타내는 칼 형태와 의례적 행위를 나타내는 히필 형태는 모두 ‘불태우다’와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제사드리다(make offering)’로 번역하면, 한국에서 드리는 전통적 제사 행위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희생 동물을 불태우고 연기를 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 행위와 한국의 제사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새번역』 및 ESV, LB와는 달리, 『새한글』은 구체적으로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친다’라고 표현합니다(출 29:13; 레 1:9; 민 5:26; 삼상 2:16 등).

(3) 『새한글』의 ‘거룩거룩한곳’은, 기존에 ‘지성소’로 알려진 히브리어 קֹדֶשׁ הַקְּדוֹשִׁים(코데쉬 학코다셈)을 순우리말로 직역한 것입니다(출 26:34; 레 16:33; 왕상 6:16; 겔 41:21; 히 9:3 등). 이 단어는 거룩을 뜻하는 קָדַשׁ(코데쉬)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런 구성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거룩거룩한곳’은 이 구성을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성서와 신학에 익숙한 독자에게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운 순우리말 번역어를 『새한글』부터 시작하여

사용해 나가다 보면 미래에는 지성소를 대체할 용어로 잘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4) ‘덮다,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성서 히브리어 קָפַר(카파르)를, 성경과 신학 용어에 낯선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한글』은 ‘죄를 없애다’로 번역하였습니다(출 29:33; 레 1:4; 민 5:8; 신 21:8 등; 『공동개정』의 ‘죄를 벗기다’ 참조).

2.4. 『새한글』 역대상 6:49[34]의 가르침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히 10:10-12). 그가 오기 전, 구약성서의 시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은 거룩거룩한곳에 들어가 엄중하게 일해야 했으며, 희생제물을 ‘다 태워’ 제단에 바치면서 제물에 전가된 ‘죄를 없애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레 1:4; 민 16:46-47). 제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시 51:16-17; 갈 3:19-29).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죄는 인간에게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2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잘 씻어 주셔서 잘못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가 없어지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3. 역대상 23:13aβ, 복을 빌다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לִכְרֹךְ בְּשֵׁמוֹ עַד-עוֹלָם:
『개역개정』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u>축복하게</u> 되었느니라
『새번역』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u>복을 빌게</u> 하려고 …
『공동개정』	그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u>복을 빌어주는</u> …
『새한글』	또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르도록 <u>복을 빌어 주게</u> 한 것이다.
ESV	… and minister to him and <u>pronounce blessings</u> in his name forever.

NET ²	on a permanent basis ... to praise his name.
LB	... und zu segnen im Namen des Herrn ewiglich.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ברכה(우르바렉)

익숙한 『개역개정』의 ‘축복하다’ 대신에 『새번역』, 『공동개정』과 함께 『새한글』은 ‘복을 빌다’로 번역했습니다.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성서 히브리어 동사 בָּרַךְ(바락)은 주로 피엘 형태로 사용되며, 그 주요한 뜻은 ‘복을 빌다/주다,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복을 주는 것, 축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간이 하나님께 이 동사의 행위를 할 때는 찬양을 드리거나 송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복을 주는 축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자신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는 ‘복을 빌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복을 비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복을 주는 주체는 아닙니다. 구절 전문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בָּרַךְ(바락)을 합니다. 이는 아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비는’ 임무를 받은 겁니다. 『새한글』은 בָּרַךְ(바락)의 주체 문제를 면밀하게 다루어 번역했습니다(민 6:23-27; 신 21:5; 삼하 6:18; 왕상 8:55). 『새한글』의 이 표현을 영어에 적용한다면 ‘pray for blessing’, 독일어로는 ‘um Segen bitten’ 정도가 될 겁니다.

3.4. 『새한글』 역대상 23:13aβ의 가르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신앙인은, 아론처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빌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면밀하게 구별하여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을 주는 주체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거나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줄 수는 있으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주체는 감히 될 수 없습니다.

4. 역대상 29:15하반, 겸손한 신뢰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כָּל יְמֵינוּ עַל־הָאָרֶץ וְאֵין מִקְוֶה:
『개역개정』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u>희망이 없나이다</u>
『새번역』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u>의지할 곳이 없습니다.</u>
『공동개정』	<u>아무 희망도 없이</u> 떠도는 모습은 마치 땅 위를 스쳐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새한글』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u>바라는 것도 없습니다.</u>
ESV	Our days on the earth are like a shadow, and <u>there is no abiding.</u>
NET ²	... our days are like a shadow on the earth, <u>without security.</u>
TNK	... our days on earth are like a shadow, <u>with nothing in prospect.</u>
LB	Unser Leben auf Erden ist wie ein Schatten und <u>bleibet nicht.</u>
ZB	Unsere Tage auf Erden sind wie ein Schatten, und <u>es gibt keine Hoffnung.</u>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מִקְוֶה וְאֵין(위엔 미크웨)

절망적 운명을 표현하는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겸허한 신뢰를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 없다’로 번역했습니다.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מִקְוֶה וְאֵין(위엔 미크웨)에서 וְאֵין(엔)은 ‘없다’고 מִקְוֶה(미크웨)는 ‘희망’이나 ‘소망’,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17절의 문맥 가운데서 보자면, וְאֵין מִקְוֶה(위엔 미크웨)는 ‘희망이 없다’라는 식의 부정적 절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림자처럼 부질없으므로,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וְאֵין

מִקְוֵה(위엔 미크웨)는 그래서 생이 희망이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욕심낼 것이 없다는 겸허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역본이 부정적인 ‘희망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without security’, ‘bleiben nicht’ 등으로 번역하지만, 『새한글』은 문맥과 어울리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로 겸허한 신뢰를 표현합니다(TNK의 ‘with nothing in prospect’ 참조).

4.4. 『새한글』 역대상 29:15하반의 가르침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29:10-19),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노래합니다(10-13절). 인간은 미력하나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겸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14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5절에서 다윗은, 가진 것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조차 덧없다고 노래합니다. 땅에서 사는 인간의 삶은 그림자 같아서, 이 덧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더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마련하고 드리는 것만이 옳곧게 사는 것입니다(16-17절). 이 찬양은 성전을 짓겠다는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곧 이 땅에서는 ‘바라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5. 역대상 29:25ab α , 당당한 나라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יְגִדְלוּ יְהוָה אֱת־שְׁלֹמֹה לְמַעַן לַעֲשֵׂי כָל־יִשְׂרָאֵל וַיִּתֵּן עָלָיו חֹדֶר מַלְכוּת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u>목전에서</u> 심히 크게 하시고 또 <u>왕의 위엄</u> 을 그에게 주사 …
『새번역』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u>눈에 띄도록</u>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 <u>왕국의 영화</u> 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공동개정』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u>우러르도록</u> 솔로몬

	을 높이시고 … 위엄 을 입혀주셨다.
『새한글』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솔로몬을 드높여 주셨다. 당당한 나라 를 그에게 주셨다.
ESV	And the Lord made Solomon very great in the sight of all Israel and bestowed on him such royal majesty …
NET ²	The Lord greatly magnified Solomon before all Israel and bestowed on him greater majesty …
LB	Und der Herr machte Salomo immer größer vor ganz Israel und gab ihm ein herrliches Königtum , …
ZB	Und der Herr machte Salomo überaus gross vor den Augen von ganz Israel und gab ihm die Hoheit der Königsherrschaft , …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공동개정』과 『새번역』과는 다르게, 『개역개정』과 『새한글』은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충실히 따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이신 뒤, 그에게 당당한 나라를 주셨다는 문장이 곧바로 나오도록 번역되어, 원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 לְעֵינַי (르에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직역인 ‘눈앞에서’로 번역했습니다.

(3) הוֹדַר מְלָכוּת (훗 말콧)

다른 역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당당한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은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솔로몬을 높이신 ‘역사’와 그에게 당당한 나라를 주신 ‘결과’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번역하였습니다. 특히 25절 후반부는 이러한 구조 덕분에, 낭독 시 ‘당당한 나라’를 스타카토 같은 강한 어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미적 강조와 청각적 여운이 동시에 전달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2) לְעֵינַי (르에네)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 번역이 그 뜻을 전달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직역은 가장 충실한 번역입니다. 『새한글』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ESV와 ZB처럼 원문을 있는 그대로 옮기며 ‘눈앞에서(in the sight of/vor den Augen)’라고 번역했습니다. ‘목전에서’는 사라져가는 한자어며, ‘우르르도록’과 ‘눈에 띄도록’은 과한 의역입니다. 원문의 문자적 의미가 많이 축소된 ‘before’나 ‘vor’류의 번역인 ‘앞’은 피했습니다.

(3) מְלִכּוּת הוּד(훗 말콧)

מְלִכּוּת(말콧)은 왕국이나 왕권, הוּד(훗)은 영화나 위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왕국의 영화’나 ‘great majesty’, ‘ein herrliches Königtum’ 등으로 적절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솔로몬 왕국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대기 저자에게는, 솔로몬 왕국의 הוּד(훗)은 ‘당당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고 유배 가야 했던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집필되었던 역대기는, 그들이 겪었던 민족적 수치와 모멸감을 다윗-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통해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솔로몬의 מְלִכּוּת הוּד(훗 말콧) 번역은 ‘당당한 나라’입니다. 미려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에 이르러 주변 국가와 비교해 절대 밀리지 않는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큰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영토 안정과 성전 건축, 빛나는 문화적 유산과 체계적 국가 행정을 통해, 솔로몬은 비로소 ‘당당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5.4. 『새한글』 역대상 29:25ab α 의 가르침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삼하 7:12-16).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과 유배로 ‘마른 뼈’처럼 죽어있었지만(겔 37:1-14),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렘 29:10-14). 유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모두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따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 성서번역, 대상 4:10, 대상 6:49, 대상 23:13, 대상 29:15, 대상 29:25.

New Korean Translation, Bible Translation, 1Ch 4:10, 1Ch 6:49, 1Ch 23:13, 1Ch 29:15, 1Ch 29:25.

(투고 일자: 2025년 2월 28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일)